

한변(韓辯), 대구 지부에 이어 인천 지부 출범

일시 : 2020. 9. 15. (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의실**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구 지부 출범에 이어 내일 15일 인천지부를 출범시킨다. 한변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아래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북한인권을 개선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2013. 9. 10. 출범한 변호사단체로, 북한인권 개선을 목표로 삼은 유일한 임의 변호사단체이다.

한변은 그 동안,

(1) 북한인권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화요집회, 김정은에 대한 반인도범죄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각종 탈북민 법률구조, 최초의 북한인권상 시상 등 다양한 북한 인권 개선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2) 그 외에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회선진화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주 4·3 기념관 전시금지 소송, 신고리 5,6호 원전 가동 중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한수원 이사 배임 고발, 국가기밀 누설 국정원장 고발,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초과근로 처벌 위헌확인 헌법소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요구 변호사 선언, 김경수 판결 분석 토론회, 9/19 군사합의 및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헌법위반 시정 청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변호사 시국선언,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등 각종 소송과 세미나 개최, 캠페인 등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인천 지부의 출범은 한변 설립 후 7년 만의 일로, 2019. 12. 16. 대구 지부 출범 이후 전국에서 두 번째 지부의 출범이며, 향후 한변 인천지부는 한변 본부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인천 지역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수호 및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열심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변 인천 지부가 출범하는 9월 15일은 1950년 기습적인 남침으로 발발된 6·25 전쟁 당시 전세를 일거에 뒤바꾼 인천상륙작전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로 그 의미가 깊다.

초대 인천지부 회장은 한국정신장애연대 활동 등을 통해 인권 개선 운동 및 적극적인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해온 권오용 변호사(사법시험 27회, 사법연수원 17기)가 맡고, 총무는 최명섭 변호사(변시3회)가 맡게 되었으며, 향후 인천 관내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하고 있다.

2020. 9. 1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인천지부 회장 권오용

인천지부 총무 최명섭